

2024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의사록

회의 개요

○ 일	정: 2024. 11. 11.(월) 13:30~15:30
○ 장	소: 모두누림센터 3층 대표이사실
○ 참	석: 총7명
	- 내부위원(2명): ○○○(위원장), ○○○
	- 외부위원(3명): ○○○, ○○○, ○○○
	- 간 사: ○○○
	- 서 가: ○○○

상정 안건: 총2건

연번	구분	안건	비고
1	심의 안건	2024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2	심의 안건	2024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결과

○ 모두 원안 가결(위원 5인 중 5인 심의 참여/ 심사위원 전원 동의)

세부내용

○ 안건 제1호: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심의결과: 원안대로 승인함
- 세부내역 (안건 제1호: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구분	성명	찬성	반대	의견	비고
내부위원(2)	○○○	○		-	위원장
	○○○	○		-	
외부위원(3)	○○○	○		-	
	○○○	○		-	
	○○○	○		-	

□ 안전 제2호: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심의결과: 원안대로 승인함
- 세부내역 (안전 제2호: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구분	성명	찬성	반대	의견	비고
내부위원(2)	○○○	○		-	위원장
	○○○	○		-	
외부위원(3)	○○○	○		-	
	○○○	○		-	
	○○○	○		-	

□ 참석자 발언 요지

- 제1호 안전: 2024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2024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의결함
 - 평가대상 기간(2023년)과 심의를 진행하는 기간(2024년) 간 차이가 크다고 봄. 인권영향평가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음. (B위원, C위원)
 - 장기적으로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신고 채널(공인 인증이 필요없는) 운영 고려 필요 (B 위원)
 - 구체적인 인권보호 침해 사건의 발생으로 ‘직원 인권 보호’ 관련 개선과제가 제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권영향평가의 취지가 잠재되어 있는 인권 취약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보호 관련하여 제시된 개선 의견은 상당히 유효하다고 봄 (D 위원)
 - 인권영향평가를 외주 용역이 아닌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고려 (C 위원)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개선 의견 중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개를 위한 제도 마련(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의 가해자에 대한 ‘공개’ 부분은 적당하지 않음. (C 위원)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개를 위한 제도 마련(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부분 중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개’ 문구 변경 제안 (D 위원)
- 노사협의회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모호하다고 생각됨. (C 위원)
- 인권 침해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회복 등을 위한 심리적, 정신적, 금전적 지원 제도 마련 필요하다고 적시하는 것이 지엽적이며,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마치 재단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음. 사건에 따라 산재 보험의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승인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홍보해서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계속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중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음. (C 위원)
- 인권경영 우수자에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한 사람(노사협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에 대한 포상 고려 (B 위원)
- 인권경영에 대한 포상이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것을 제안 (B 위원)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직원 외에 타사업의 상담사들에게도 치유 프로그램 적용 검토 요함. 대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공유될 것을 제안 (B 위원)

○ 제2호 안건: 2024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2024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의결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소수(비주류)의 사업에도 적용 제안 (B 위원)
- 차년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반영하면 좀 더 풍부하게 개선의견이 나올 것이라 기대 (D 위원)
- 통합상담소의 개선과제(휴게실 설치)의 경우 입주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휴

계실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듦 (E 위원)

○ 기타사항

- 차년도 인권영향평가의 시행 시기 단축하도록 하겠음 (A 위원)
- 작년(2022년 실적) 대비 올해(2023년 실적) 인권영향평가를 비교하여 훨씬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함 (D 위원)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많이 개선하고, 재단이 열심히 임하였다는 생각이 듦 (B 위원)
- 차년도 연초에 인권경영선언 및 인권경영 운영 계획 발표하여 직원들이 인권경영에 관심을 갖을 수 있게 하고자 함 (A 위원)